

가정노동 만족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atisfaction Factor to Household Work

성심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정영금

Dept. of Home Management, Songsim University for Women
Assistant Prof.: Jeong, Young Keum

〈목 차〉

| | |
|------------|-------------|
| I. 문제의 제기 | IV. 결과 및 보고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 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variables related to household work and to find the methods to increase it. The data using in -depth interview method was collected. 30 homemakers were sampled, and the frequency and interview contents were presented.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18 out of 30 interviewees were satisfied with their household work, but they just accepted their given lives.
2. Changes in socialization for woman, general images of household work and women's perception to thier work rather than reduction of work load are needed.
3. When women choose the household work as their job, their satisfaction will be increased.

* 이 논문은 93학년도 성심여자대학교 일반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문제의 제기

오늘날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율이 증가되고 있어 가정노동의 사회적 의미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여성의 직업활동이 임금과 더불어 사회적 신분을 제공받게 됨으로써 가정노동의 가치는 점차 떨어지고 있다. 결국 전업주부의 생활의 대부분인 가정노동이 실제적으로 고유의 보상을 덜 받게 되었고 그에 따라 가정노동 만족도 역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가정노동에 관한 연구를 통해 보면, 주부들이 일에 호의적이거나 비교적 만족한다는 결과(김연화, 1986; 김의숙, 서창원, 1986; 윤소영, 1992 등)도 있는 반면에 가정노동에 대해 불만족하는 주부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지적된 결과(문숙재, 1980; 서창원, 1984)도 있다.

가정일은 자율성과 다양성을 제공하며 가치와 보람이 있기는 하지만, 그토록 보람있는 일을 가능하면 기피하려 하고 적어도 자녀들은 자기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는 주부의 수가 늘어나는데 문제가 있다. 즉, 주부가 됨으로써 얻는 단기적인 이익-불만족스러운 직업에서의 탈출과 주부라는 새로운 직업이 주는 만족-이 주부의 고립감, 낮은 지위, 재정적 의존감보다 적다고 느끼기 시작하였다.

1990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약 47%로서 전체 여성인구의 절반가량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연령별, 혼인 상태별 분포도 많이 변화되었다. 연령별로는 24세 이하의 연령층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고 25-39세 연령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또 혼인 상태별로는 미혼대 기혼의 비율이 1977년 90.3:9.7, 1980년 85.6:14.4, 1985년 79.3:20.7로 변화되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였다(강이숙, 박이남, 1991).

취업 여성의 경우에, 직업상으로 전문 기술/행정 관리직보다는 사무/판매직이나 서비스/생산직에 더 많이 종사하고 있으며 고용형태면에서 임시고의 비율이 아직도 높은 실정이므로 여성이 취업을 하겠다고 해서 모두 높은 임금과 지위를 확보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취업주부는 '자신의 일'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지위가 보장되고 적든 많은간에 소득이

있다는 점에서 전업주부보다 능력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이 사회의 통념이다.

이러한 이유로 결혼 당시에는 자신의 의사에 의해 전업주부를 선택했는지라도, 대부분의 주부들은 서서히 자신의 일을 무가치하게 여기며 긍지를 갖지 못한 채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퇴보한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주부는 자아실현의 욕구와 가정노동의 부담, 현모양처와 능력있는 직업여성 사이에서 갈등과 불안을 겪게 됨으로써 결국 현재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 불만족을 느끼며, 그 일은 주부 생활의 가장 큰 부분이므로 생활전반에 대한 불만족으로 까지 연결된다.

사회 구성원의 일부인 주부들이 의미없는 노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가정의 안정성을 저해하며 사회적으로도 문제시될 수 있으므로 이제까지 가정노동에 대한 만족/불만족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주부들의 가정적, 사회심리적 조건과의 관계를 양적으로 파악하는 통계조사가 대부분일 뿐 만족/불만족의 요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질적인 연구는 행해지지 않았다.

질적인 연구는 심층면접을 통해 조사대상자의 생각을 다양하게 얻을 수 있으며 개인적인 경험에 입각한 생생하고 정확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으므로 응답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방법을 통해 가정노동에 대한 주부들의 만족정도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주부의 불만족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또한 가정노동 가치에 대한 주부들의 인식정도나 만족정도는 현재 주부가 안고 있는 노동부담이나 설비의 부적합성, 가족사항과 같은 작업조건뿐만 아니라 과거에 받은 교육 및 부모들의 사고, 결혼전에 가졌던 인식과의 차이, 미래의 취업희망과 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들과 관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면접을 통해 과거의 생각, 현재의 상태, 앞으로의 가능성 등을 폭넓게 조사함으로써 보다 중요한 영향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주부들의 의식상의 비일관성, 의식과 행동간의 괴리 등을

지적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것은, 이제까지의 통계조사들이 주부의 가정노동 만족의 정도와 영향요인을 수량적으로 파악하고 그 실태만을 제시하였던 것과는 달리, 주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함과 동시에 불만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주부안에서 찾기 위한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정노동의 의미 및 만족

흔히 가정노동이라고 하면 육아, 요리, 빨래 등을 연상하게 되지만, 같은 육아활동이라도 유치원이나 유아원에서 수행되면 사회적 노동으로 간주되고 가정에서 행해지면 가정노동이라고 여겨진다. 즉 가정노동이란 사회적 노동에 대비되는 용어로서 가정내에서 가족원의 소비를 위해 수행되는 노동이다.

이러한 가정노동은 자급자족적 생산이 주를 이루었던 봉건사회에서는 여성들에게 고립감이나 무가치함을 느끼게 하지 않았으며 가정노동 담당자로서 여성의 경제적 역할이 남성과 마찬가지로 생산적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교환가치가 중시되는 자본주의 사회로 들어오면서 가정생산물의 사용가치는 보잘것없이 되고 여성은 가정노동에 예측된 소비자의 위치로 전락되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가정노동의 수행은 가족원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인 동시에 애정어린 헌신이며, 이를 통해 가정이 유지, 발전된다고 생각함으로써 정신적인 보상을 받으며 가정내의 자율성을 누리게 된다. 반면에 자발적인 봉사는 일방적인 희생물, 고귀한 헌신은 무보수의 비애를, 자본으로 부터의 자유는 사회적 고립감을 동반한다는 것이 보다 현실적으로 주부들이 느끼는 감정이다(서진영, 1991). 따라서 전업주부들은 가정노동이 갖는 후자의 의미로 인해 불만족스럽게 되고 취업주부들은 그들대로 이중의 역할로 인해 가정노동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현재와 같이 가정노동을 대신해 줄 만한사회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업주부이든 취업주부이든 간에 가능한 한 가정노

동을 기피하려고만 한다면 이에 대한 불만족만 가중될 뿐이다.

만족이란 개인이 갖는 기대와 그가 실제로 받는 보상간의 일치의 정도로서 개인의 가치관이나 목표, 기대등이 달라짐에 따라 만족도가 변화하게 되며, 같은 조건하에서도 각 개인에 따라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일반적인 생활의 만족도와 비교할 때, 가정노동의 만족도란 가정노동의 수행을 통해서 느끼는 욕구충족 정도에 대한 주관적 감정상태 또는 가정노동에 대한 긍정적 내지는 호의적 태도를 의미하며(서창원, 1984) 가정노동 전반에 대해 갖는 주관적, 심리적인 경향으로 정의되기도 한다(김연화, 1986).

특히 주부의 경우에는 가정노동이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정노동에 대한 만족도를 전반적인 생활만족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가정노동의 수행에 따른 산출로서의 주관적 감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산출로서의 가정노동 만족도는 피이드백되어 다음의 투입에 작용하므로 가정내 시간배분, 가정노동의 사회화 정도, 직업활동에의 참여여부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가정노동 만족도는 주부의 가족환경적 요인 못지 않게 사회심리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여러연구에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노동에 대한 만족/불만족의 요인을 주부의 내적인 상태를 통해 발견하고자 하였으므로 사회심리적인 요인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선행연구결과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가정노동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과거의 교육

가정이나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화 과정은 개인의 사회적 역할이나 태도, 행동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서 여성의 경우에는 주부라는 사회적 지위를 자연스럽게 점유하게 된다. 역할이란 개인이 가족, 사회, 집단내에서 차지하는 특수한 위치와 관련된 행동, 의무, 권리에 대한 기대라고 정의되므로(Duvall, 1977) 주부의 역할은 어머니, 아내,

가정노동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포함하여 주부에게 기대되는 일련의 행동, 의무, 권리를 의미한다.

특히 주부의 역할은 주부가 됨으로써 수용한다기 보다는 어린시절부터 여성스러움과 가정적인 것이 동일하다고 교육받음으로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주부상으로 형상화시켰으며, 오랜 기간동안의 견습을 통해 주부역할이 체득되어 여성이 결혼을 통해 가정노동을 담당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즉, 여성은 Ruth Hartley가 분류한 조작에 의한 사회화, 언어상의 명칭화, 심연화, 행동표출 등 4단계의 사회화과정을 거쳐 여성역할, 주부역할, 자아정체감이 무의식적으로 행동속에 뒤섞이는 결과가 나타난다(Oakley, 1974).

따라서 여성은 자신의 진정한 의지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운명적으로 주부역할을 떠맡게 되며, 그렇기 때문에 주부가 된 이후에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보고 이 두 개념간에 차이가 있을 때 불만족을 경험하게 된다. Steidl과 Bratton(1968)은 주부가 자신의 여성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확실한 가치관이 없을 때 가정노동에 대한 불만족이 커진다고 하였으며, Oakley(1974)의 연구에서는 중류주부의 65%가 자신이 주부임을 나타내기를 꺼려하고 그러한 주부의 약 86%가 가정노동에 불만을 표시한 반면에 별로 꺼리지 않는 주부의 13%만이 불만을 표시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남편의 수입으로 집에서 살림하는 모습으로 대표되는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주부들이 하층 주부나 취업주부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이상적이거나 행복하지 않다. 가정노동과 사회적 노동이 분리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부가 하는 일의 중요성과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주부의 위치가 불안정해 지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가 늘어나고 성공한 직업여성이 더욱 바람직한 여성상으로 대체되면서 주부들은 주부역할에 만족하지 못하고 경제적 지위의 불안정을 느끼게 된다(서진영, 1991).

또한 주부역할의 사회화과정에서는 어린 시절에 행했던 가정노동의 훈련, 역할모델로서 어머니의 모방, 어머니의 가사수행방식의 반복 등이 중요한데, Oakley(1974)의 면접결과에 의하면 자신의 가정노동

행위를 서술할 때 대체로 어머니의 행위를 함께 제시하였으며 자신의 가정노동에 대한 태도는 끊임없는 어머니의 모방 이거나 어머니의 표준에 대한 반발에 의해 형성되었다. 즉 좋은 싫든간에 어머니가 중요한 준거가 되었다.

한편 주부들이 가정노동만으로 만족하지 못함으로서 찾게 되는 대안으로 취업을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일정기간동안 주부업에만 전념하다가 재취업을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육아를 비롯한 가정노동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도적 보조도 전무한 상태이다. 게다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주부 자체의 취업의사 및 능력으로서 자신의 확고한 의지나 적절한 준비없이 취업만을 선호하는 풍조이다. 즉 노동에 시달리고 상사에게 질책당하고 온갖 위협에 맞서는 일은 하고 싶지 않지만 임금은 받고 싶고, 남자들보다 더 고생하고 싶지는 않지만 적어도 남자와 평등하게 대우받고 싶어 한다(서진영, 1991). 이러한 주부들의 문제는 이제까지 막연하게 지적되었을 뿐 실제의 의식조사를 근거로 하지 못했으므로 심층면접을 통해 파악해 보는 것이 의미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주부역할에 대한 인식, 자아정체감과 관계, 어린 시절의 가정노동 훈련, 어머니의 모방 등으로 표현된 과거의 교육이 현재의 가정노동에 대한 만족/불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미래의 취업희망여부와 자신의 적성, 취업능력 등과의 관계를 통해 주부들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정확한 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2) 현재의 노동조건

(1) 가정노동의 이미지

일반적으로 가정노동에 대해서 두가지의 상반된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즉 가정주부는 억압된 노동자로서 가치가 적고 즐겁지도 않은 일을 노예처럼 하고 있다는 견해와 가정노동은 끊임없이 창조적인 기회를 제공한다는 견해이다(Oakley, 1974). 이 중 어떠한 측면이 강조되느냐에 따라 주부들이 가정노동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게 되며 만족정도에도 영향

을 미치게 된다. 흔히 주부가 됨으로서 가장 좋은 측면과 가장 나쁜 측면에 대한 응답을 통해 판단되거나 가정노동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이유, 가정노동의 특성에 대한 견해 등으로 나타난다.

Maloch(1963)의 연구에서는 지루함, 피로 등이 가장 싫어하는 가정노동의 특성이었고 Steidl(1975)의 결과에서는 결과에 대한 만족, 작업내용, 시간 등을 지적하였다. 서창원(1984)의 연구에서도 가정노동 특성변수에 따라 가정노동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즉 가정노동에 대하여 기술 및 창의성을 많이 필요로 하는 노동이라고 인지하는 주부일수록, 가정노동 수행에 대한 보상정도가 큰 주부일수록, 가정노동의 부담을 적게 느낄수록, 가정노동을 잡다하고 반복적인 노동으로 인지하지 않는 주부일수록 가정노동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Oakley(1974)의 연구에서는 가정주부가 됨으로서 가장 좋은 것으로서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다' '자유시간을 갖는다' 등 자율성이 높게 평가되었고 나쁜 것으로는 '가정노동의 부담', '단조로움과 반복성' 등이 지적되었으며, 이들과 가정노동 만족과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한편 Oakley(1974)는 가정노동이 어떤 종류의 노동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신의 가정노동과 남편의 노동을 비교하도록 하였는데, 40명의 여성 중 26명은 자신들이 남편보다 더 힘든 일을 한다고 하였고 7명은 남편이 더 힘든 일을 한다고 하였으며 나머지 7명은 직업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끝이 없는 일, 감정적인 면에서의 피로, 비건설적인 특성들로 인하여 여성의 일이 더 힘들다고 하였다. 또 여러가지 가정노동의 하위작업들을 분류하여 좋거나 싫은 작업과 그 이유를 질문함으로써 주부들의 경험을 보다 완전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akley의 견해를 토대로 하여 가정노동의 이미지라는 부제하에서, 주부로서 좋거나 싫은 점을 파악하고 주부의 노동과 남편의 노동을 비교해 봄으로써 주부의 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노동부담

노동부담은 주부가 가정노동을 수행하는데 요구되

는 노동시간, 에너지 소비와 피로감등을 포함하며 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가족원의 분담이나 설비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주부의 노동시간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긴 것 중의 하나로서 Oakley(1974)의 면접결과에서는 주당 48~105시간이 가정노동에 소비되었고, 이 결과를 통해 여성의 노동은 끝이 없다고 하는 주부들의 표현을 실감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는 모순되게 노동시간과 가정노동 불만족과는 통계적인 관계를 보이지 않았는데 기타의 직업활동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동시간은 다른 노동조건보다 만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노동시간이 긴 것은 주부역할에서 예상된 부분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상황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단지 가정노동의 시간소모적 특성, 노동과중성등이 가정노동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의 주부들도 많게는 10시간 이상의 가정노동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노동시간이 만족의 요인이 되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가족원의 가사분담정도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매우 미약하여 가정노동 만족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Oakley의 연구를 보면, 극소수의 남편만이 현대의 결혼이 평등하다는 주장에 어울릴 만큼 가정노동을 도와주고 있으며 참여분야도 자녀양육에 편중되어 있다. 또 가정노동과 자녀양육을 어느 정도 도와준다고 해서 가정노동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단지 여성의 자녀양육 부담이 다소 경감되거나 결혼만족에 약간의 영향을 미칠 뿐이다.

문숙재(1991)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가정노동시간이 평일 37분, 휴일 98분이었고 주부가 취업한 경우에도 남편의 도움은 증가하지 않았으며 많이 도와주는 분야는 자녀 돌보기, 주택손질 및 수리 등 전통적으로 남자가 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또 남편들은 대부분 자신과 관련된 일조차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주부 스스로도 가정노동은 여성의 일로 인정함으로써 남편의 가사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동시에 주부의 역할은 가정내에서 가정외부도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가

정내 역할에는 변화가 없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한편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는 가정노동 만족도에 영향을 미쳐서, 가족원의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인 주부는 소극적인 주부보다 만족도가 낮았다. 왜냐하면 가사분담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주부의 경우에는 기대와 현실간의 차이가 클 것이기 때문에 가정노동 만족도가 낮아진다(서창원, 1984).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는 가정노동시간, 가족원의 가사분담정도, 가사분담에 대한 주부의 태도 등을 조사하여 가정노동에 대한 부담이 만족의 요인이 되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가정노동 만족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육아를 포함한 모든 가정노동을 수행하는 주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신혼기 가정 및 은퇴기 가정은 가정노동시간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확대가족의 경우에는 가정노동 이외의 불만요인이 있거나 가정노동 조력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서울에 거주하는 20-40대 주부로서 자녀가 있고 파출부를 고용하지 않는(큰 일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함) 전업주부에 국한시켰다.

이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는 주부 30명을 선정하여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으로 가족관계, 학력, 소득을 알아보았다. 심층면접에서는 기기설비수준, 가정노동에 대한 태도, 가정노동시간, 가사분담정도, 직업경험 및 가정내 교육을 포함하는 가족역사, 가정노동의 가치인식, 가정노동 및 생활 만족도 등 폭넓게 조사하였다.

가정노동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가정노동을 20가지로 구분하여 좋고 싫은 정도를 알아보았고, 평일/휴일의 주부의 노동시간과 수면 및 여가시간을 알아보았다. 가사분담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족원의 조력시간 및 내용, 조력요구시의 상황들을 질문

하였다. 또 가족역사는 Oakley(1974)의 면접내용을 재구성하여 어머니의 가족노동 만족정도, 가정일 수행에 관한 친가의 분위기, 어머니와의 동일시 여부, 어머니의 모방, 과거의 직업경험, 주부의 가정일과 남편의 직장일에 관한 의견 등을 통해 파악하였다. 가정노동의 가치인식은 가정내적인 측면과 외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질문하였으며, 만족도는 가정노동과 가정생활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심층면접에 적합한 비표준화되고 비조직적인 조사지를 이용한 관계로 모든 주부에게 동일한 질문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 조직화하지 않은 심층면접은 연구자가 깊이 캐어 묻고 응답자의 생생하고 포괄적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인 면접의 틀 속에서 융통성있게 운영하였다.

조사는 92년 10월 20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사전에 교육을 받은 조사원들이 2차에 걸친 가정방문과 기록 및 녹음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1차적인 자료정리 후 부족한 내용은 전화질문을 통해 보충하였다.

조사자료는 빈도를 중심으로 분석하며, 결과제시에 적합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하였다.

2. 사례의 일반적 성격

각 사례에 대한 면접자료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 주부들은 연령별로 20대가 5명, 30대가 12명, 40대가 13명이었고, 대체로 20대가 후반기에 결혼하므로 20대 주부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자녀수별로는 한자녀만 가진 주부가 5명, 두자녀를 가진 주부 19명, 세자녀를 가진 주부 6명으로서 4인가정의 수가 많았다. 소득별로는 100만원 미만이 2명, 100-149만원이 9명, 150-199만원이 8명, 200만원 이상이 11명으로서 100-199만원 소득인 가정이 주를 이루었다. 또 학력별로는 종졸이 3명, 고졸이 22명, 대졸이 5명으로서 고졸인 주부의 수가 많았다.

〈표 1〉 조사대상 면접자료

| 사례번호 | 주부연령 (단위:세) | 자녀수 (단위:명) | 소득 (단위:만 원) | 학력 |
|------|----------------|---------------|-------------------|----|
| 1 | 38 | 2 | 210 | 고졸 |
| 2 | 26 | 2 | 78 | 고졸 |
| 3 | 32 | 2 | 120 | 고졸 |
| 4 | 28 | 2 | 200 | 고졸 |
| 5 | 34 | 2 | 167 | 고졸 |
| 6 | 28 | 2 | 125 | 고졸 |
| 7 | 30 | 2 | 105 | 고졸 |
| 8 | 46 | 2 | 200 | 대졸 |
| 9 | 40 | 2 | 200 | 고졸 |
| 10 | 33 | 1 | 150 | 고졸 |
| 11 | 39 | 2 | 150 | 중졸 |
| 12 | 46 | 2 | 110 | 고졸 |
| 13 | 40 | 2 | 208 | 대졸 |
| 14 | 41 | 2 | 250 | 고졸 |
| 15 | 38 | 3 | 150 | 고졸 |
| 16 | 39 | 2 | 170 | 고졸 |
| 17 | 41 | 1 | 120 | 고졸 |
| 18 | 39 | 1 | 200 | 중졸 |
| 19 | 41 | 2 | 180 | 고졸 |
| 20 | 35 | 1 | 120 | 고졸 |
| 21 | 47 | 3 | 250 | 고졸 |
| 22 | 41 | 3 | 200 | 고졸 |
| 23 | 29 | 2 | 100 | 고졸 |
| 24 | 29 | 1 | 70 | 고졸 |
| 25 | 41 | 2 | 170 | 중졸 |
| 26 | 35 | 2 | 130 | 고졸 |
| 27 | 47 | 3 | 250 | 대졸 |
| 28 | 38 | 2 | 180 | 대졸 |
| 29 | 49 | 3 | 132 | 고졸 |
| 30 | 41 | 3 | 200 | 대졸 |

IV. 결과 및 해석

1. 가정노동에 대한 만족

주부들의 가정노동에 대한 만족정도는 〈표 2〉와 같이, 만족하는 주부의 수가 많기는 하나 불만족하는 주부도 상당수 있었다. 18명의 주부가 가정노동

에 만족하였고 4명은 보통, 8명은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중에서 보통이라고 한 주부들은 대체로 ‘그저 그렇다’거나 ‘그저 하는 것일 뿐’이라고 대답한 점으로 보아 불만족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표 2〉 가정노동 및 생활 만족

| | 가정노동 만족 | 생활 만족 |
|-------|---------|-------|
| 만족한 | 18 | 23 |
| 보통이다 | 4 | 2 |
| 불만족한다 | 8 | 5 |

〈사례 25〉 가사일은 만족하거나 불만족하는 그런 게 아니다. 어렸을 때 부터 쭉 해오던 것이고 일에 대해 익숙하니까 그저 하는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보통이라고 한 주부들은 가정노동에 대한 특별한 느낌없이 체념에 가깝게 반복 수행하므로 이들을 불만족한 집단에 포함시킨다면 응답주부의 약 40%가 가정노동에 불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이하 ‘보통이다’는 ‘불만족’에 포함시킴). 이에 비해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에 대해서는 23명의 주부가 만족한다고 함으로써 가정노동에 비해 만족하는 주부가 많았다.

또 가정노동에 대한 만족과 생활에 대한 만족문제를 연결시켜 보았을때, 가정노동과 생활에 모두 만족한 주부 17명, 가정노동에는 불만족하나 생활에 만족한 주부 6명, 가정노동에는 만족하나 생활에 불만족한 주부 1명, 가정노동과 생활에 모두 불만족한 주부 6명으로 파악되었다. 즉 가정노동에 만족한 주부 중에서는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생활에 만족하였고 가정노동에 불만족한 주부 중에서는 2명만 제외하고 모두 생활에 불만족하였다. 따라서 주부의 생활만족에서 차지하는 가정노동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으며, 동시에 가정노동에 대한 만족을 제고시킴으로써 전반적인 생활에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가정노동에 만족한다는 주부가 비교적 많았으나 이들이 지난 시간과 동일한 삶을 살고자 하는가의 문제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즉 가정노동에 만족하는 주부 18명중에서 13명의 주부

가 지난 시간을 다시 산다면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함으로써 자신의 일에 대한 진정한 만족이기 보다는 현재 주어진 생활에 대한 단순한 수용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삶이란 자신을 가꾸고 발전시키는 일, 사회기여, 전문직 취업 등을 예로 들었다.

2. 과거의 교육

주부의 역할이 어린 시절부터의 사회화과정을 통해 습득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어머니를 자신의 모델로 하였는가, 어머니의 가사수행방식을 따라 하는가, 이에 따른 만족여부는 어떠한가 등에 대해 질문한 결과, 아래의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표 3> 어머니의 모델화와 가정노동 만족

| 모델화 여부 | N | 가정노동 만족 | N |
|-----------|----|---------|----|
| 모델로 함 | 15 | 만족 | 11 |
| | | 불만족 | 4 |
| 모델로 하지 않음 | 15 | 만족 | 7 |
| | | 불만족 | 8 |

어머니를 자신의 미래상에 대한 모델로 삼은 응답자 15명 중 11명이 가정노동에 만족하였으며(대상자의 어머니는 모두 전업주부였음) 모델시하지 않은 응답자 15명 중 7명만이 가정노동에 만족한 것으로 보아, 모든 주부들이 어머니를 모델로 하여 성장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어머니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고 또 그렇게 되었을 때 자신의 주부역할을 무리없이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를 모델시한 응답자들은 모두 어머니의 가사수행방식을 그대로 모방하였으며 어머니를 모델시하지 않았더라도 15명 중 9명이 어머니의 방식을 모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어머니와 같은 삶을 살고 싶지는 않으나 적당한 모델이 없고 다른 대안도 없으므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은연중에 어머니가 하던 노동방식을 체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가지의 서로 다른 주부의 모습이 다음의 사례에서 제시되었다.

<사례 1> 어머니는 우리 자식들에게 매우 인자하

셨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분이셔서 나도 커서 어머니처럼 자식에게 인자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가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가족이 많았기 때문에 가정일이 꽤 많았고 아들이 많은 집이라 내가 어머니의 일을 도왔다. 오빠들은 가정일을 돕지 않았고 공부에만 신경을 썼으며 집안이 보수적인 분위기여서 당연히 여자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를 도우면서 배웠기 때문에 설거지나 청소방식에서부터 요리까지 모두 어머니의 방식을 따른다. 어머니는 가사일을 좋아하기 보다는 어떤 의무감으로 한 것 같고, 부모님은 모두 내가 결혼해서 가사일을 하기 원하셨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와 다르게 살고 싶었다. 그냥 다르게 살고 싶었다. 무언가 좀 더 행복하고 편하게 잘 살 수 있기를 바랐다. 어머니가 일하는 것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일처리가 똑같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사례 12> 워낙 집안일이 많은데다가 큰집이라 큰일이 많아서 어머니는 가정일을 많이 하셨다. 어머니는 주부로서 행복했다거나 가사일을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았으나 일에 묻혀 사셨다. 어렸을 때는 다르게 살고 싶었다. 그냥 다르게 살고 싶었다. 무언가 좀 더 행복하고 편하게 잘 살 수 있기를 바랐다. 어머니가 일하는 것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일처리가 똑같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어머니를 모델시하지는 않더라도 보모나 사회의 분위기가 결혼을 당연시 하므로 특별한 선택없이 주부의 역할을 떠맡게 되는데, 결혼 후 자신의 역할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지고 가정노동이 생각과 다를 때 이에 대한 불만이 생기게 된다. 이것은 Steidl과 Bratton(1968)의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데, 본 연구의 주장을 보완하기 위하여 결혼 전 주부에 대한 생각과의 일치여부를 알아보았다(<표 4> 참고).

주부에 대해 결혼전에 가졌던 생각과 현재의 생각이 일치하는 응답자는 7명이었고 이 중 6명이 가정노동에 만족하였으며, 생각보다 어렵다고 응답한 사람은 9명이었고 이 중 6명이 만족하였다. 그러나 주

〈표 4〉 결혼전 주부관과 가정노동 만족

| 결혼전 주부에 대한 생각 | N | 가정노동 만족 | N |
|---------------|----|---------|---|
| 생각과 일치 | 7 | 만족 | 6 |
| | | 불만족 | 1 |
| 생각보다 어려움 | 9 | 만족 | 6 |
| | | 불만족 | 3 |
| 생각해 보지 않음 | 14 | 만족 | 6 |
| | | 불만족 | 8 |

부가 된다는 것에 생각해보지도 않은 채 결혼한 사람이 14명이나 되었으며 이들 중에서 6명만이 가정노동에 만족하였다. 또 면접결과에 의하면 결혼전에 이에 대해 생각해 본 응답자들조차도 대체로 막연하고 피상적인 생각뿐이었다.

〈사례 11〉 그냥 부인이 되고 엄마가 되서 집안일을 하며 가정에서 모든 일을 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지금과 비슷하다.

〈사례 5〉 주부가 되기 전에 주부는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 내 미흡한 점을 신랑이 메꿔줄 수 있고 그 사람이 부족한 점을 내가 메꿔줄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남자들은 권위의식과 가부장적 생각이 많다. 결혼을 동경하고 그러는 것은 핑크빛 그 자체이지 결혼은 핑크빛만은 아니고 생활이다. 현실은 이상과 다르다. 생각보다 일도 많고 특히 잔일이 많다. 해도 해도 티도 안나는 일들이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주부들이 주부가 된다는 것 혹은 주부역할에 대해 생각해보지도 않거나 막연한 생각만으로 주부업을 받아들이며 실생활에 대한 인식없이 감정적인 면에 치우침으로써 가정관리적 측면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가정노동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고 이를 하나의 직업으로 스스로 선택하는 상황에 이르지 못한데에 원인이 있으므로, 다른 직업노동과 마찬가지로 가정관자로서의 역할, 의무, 장단점 등에 관한 교육이 요구된다.

한편, 주부들의 취업의사도 가정노동 만족과 관련

이 있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취업의사가 있는 주부는 19명이었고 그 중 가정노동에 만족하는 주부는 8명인데 비해 취업의사가 없는 주부 중에서는 10명이 만족하였다. 취업의사가 있으나 현재 전업주부로 남아있는 이유로는 대부분 자녀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자영업을 원하나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취업의사가 없는 주부들은 자신이 없거나 적합한 자리가 없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표 5〉 취업의사와 가정노동 만족

| 취업의사 | N | 가정노동 만족 | N |
|------|----|---------|----|
| 있음 | 19 | 만족 | 8 |
| | | 불만족 | 11 |
| 없음 | 11 | 만족 | 10 |
| | | 불만족 | 1 |

그러나 일부의 주부들은 직장생활에 적합한 능력이나 의욕도 없으면서 취업을 무조건 선호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례 22〉 회사에 다니다가 결혼때문에 그만 두었는데 남편의 영향이 컸다. 지금 다시 일을 하고 싶지만 남자들처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보다는 편안하고 활동적인 일을 하고 싶다.

또한 취업의사가 있는 주부들 19명중에서 가정일과 직장일 중 어느 것이 자신에게 더 적합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가정일이 더 맞는다에 9명, 모두 맞는다에 4명, 직장일이 더 맞는다에 6명이 응답함으로써 적성상 맞지 않는 일을 시도하려는 주부가 상당수 있었다. 가정일이 자신의 적성에 더 맞지만 가정일은 단조롭고 답답하며(사례 3, 4 등) 내 일을 갖고 싶기 때문에(사례 7, 20 등) 다른 일을 시도해보고자 하며, 직장보다는 자영업을 원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것은 주부들이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은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생활에서 탈피하기 위해 막연히 취업을 동경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며, 취업의 의도가 자아실현이나 발전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단순한 소

득획득에 집중된다고 볼 수 있다.

3. 현재의 노동조건

1) 가정노동의 이미지

주부로서의 좋은 점은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녀발전(3명), 가족원의 이해(6명), 주부로 인해 가정이 단란하고 행복할 때(6명), 편안한(3명)을 이유로 들었다. 반대로 자녀문제 발생시(8명), 소외감 및 허망함(7명), 남편문제 발생시(5명), 가족원의 무시(4명), 일이 많고 반복적(3명)이라고 느낄 때 주부로 있는 것이 싫다고 대답하였다.

<표 6> 주부로서의 좋은점과 나쁜점

| 좋은 점 | N | 나쁜 점 | N |
|---------|---|-----------|---|
| 자녀발전시 | 3 | 자녀문제 발생시 | 8 |
| 가족원의 이해 | 6 | 소외감, 허망감 | 7 |
| 단란, 행복 | 6 | 남편문제 발생시 | 5 |
| 편안함 | 3 | 가족원의 무시 | 4 |
| 기타 | 2 | 일이 많고 반복적 | 3 |
| | | 기타 | 2 |

Oakley의 연구에서는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다', '자유시간이 있다' 등의 자율성이 주부가 됨으로서 좋은 점으로 나타났고, '가정노동의 부담', '단조로움 및 반복성' 등이 싫은 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주부의 경우에는 가정노동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자녀나 남편과의 관계하에서 자신의 일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가정노동과 직업노동의 장단점을 비교한 후 가정노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는 무조건 전업주부가 되는 것을 당연시하는 우리의 현실에 기인하며, 이로써 주부들이 고립감이나 무능력함을 느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 주부들이 가정노동을 어떤 종류의 노동으로 생각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편의 노동과 비교해 보도록 하였다. 남편이 아내보다 더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주부 12명, <사례 21> 참고), 비슷하다 13명, 아내가 남편보다 더 일을 많이 한다는 주부가 5명(<사례 4>참고)으로서 대체로 남편이 더 열심히

일한다고 응답하였다. 또 남편이 더 힘들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3명이 가정노동에 불만을 느끼는데 비해 아내가 더 힘들다고 한 경우에는 5명 중 4명이 불만을 느낀다고 하였다.(<표 7> 참고)

<표 7> 부부간 노동부담과 가정노동 만족

| 노동부담정도 | N | 가정노동 만족 | N |
|--------|----|---------|----|
| 남편이 과중 | 12 | 만족 | 9 |
| | | 불만족 | 3 |
| 아내가 과중 | 5 | 만족 | 1 |
| | | 불만족 | 4 |
| 비슷함 | 13 | 만족 | 11 |
| | | 불만족 | 2 |

<사례 21> 사회에서 남성이 더 힘들고 생활에 쫓기고 숨가쁘게 경쟁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가족부양이라는 큰 짐이 있어서 불쌍하다. 하지만 여자들은 가정이라는 보호막속에서 산다. 다시 태어나도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사례 4>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남성뿐이 아니며 반복적으로 일하고 아이들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가, 또 남편이 퇴근한 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누가 더 힘들게 일하는가와 상관이 없이 대부분의 주부(25명)가 남편의 가사분담을 원하였고, 특히 아내가 더 힘들게 일한다고 응답한 주부들조차도 남녀의 역할이 바뀌는 것은 모두 원하지 않으므로써 책임의식의 결여를 엿볼 수 있다.

<사례 5> 여자가 더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먼저 일어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항상 여자가 먼저 움직인다. 남자들은 돈버는 것만 한다. 하지만 아내가 직장에 나가고 남편이 가사일 돌보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남자의 가치성이 없고 책임이 없는 것 같다. 그렇지만 급하고 힘들 때는 가사일에 보조를 해야 한다. 왜냐면 밖에서 하는 일은 한정된 시간만 하지만 여자는 하나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여자 자신의 스스로의 일은 아니다.

위와 같이, 일부 주부들은 여자가 더 열심히 일을 하므로 남편이 도와주어야 하고 가정노동이 불만스럽다고 하면서도 남녀역할을 바꾸는 것은 원치 않는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2) 노동부담

면접대상자 주부들의 가정노동시간은 5~14시간에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 8.5시간이었다. <표 8>에서 보듯이 9시간 이상 일하는 주부들 14명 중에서 10명이 가정노동에 만족하였고 4명이 불만족하였으며, 9시간 미만 일하는 주부 16명중에서는 8명이 만족하였고 8명이 불만족하였다. 즉 가정노동을 더 많이 하는 주부들 중에서 만족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가정노동의 부담이 불만족을 야기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Oakley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표 8> 가정노동 시간과 가정노동 만족

| 가정노동 시간 | N | 가정노동 만족 | N |
|---------|----|---------|----|
| 9시간 이상 | 14 | 만족 | 10 |
| | | 불만족 | 4 |
| 9시간 미만 | 16 | 만족 | 8 |
| | | 불만족 | 8 |

또 가족원간의 가사분담정도는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분담하는 가정이 18, 분담하지 않는 가정이 12가정이었다. 도움을 받는 경우에 가정노동에 만족하는 주부는 11명이고 도움을 받지 않는 경우에 만족하는 주부는 7명으로 분담여부와 관계없이 만족하는 비율이 비슷하였다.

<표 9> 가사분담과 가정노동 만족

| 가사분담 여부 | N | 가정노동 만족 | N(%) |
|---------|----|---------|--------|
| 분담함 | 18 | 만족 | 11(61) |
| | | 불만족 | 7(39) |
| 분담하지 않음 | 12 | 만족 | 7(58) |
| | | 불만족 | 5(42) |

이 결과는 가족원의 분담시간이 매우 적고 조력자

일 뿐 가사책임은 여성에게 있으므로, 미약한 분담 시간으로 인해 가정노동에 대한 만족이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가사분담여부보다는 주부의 분담의식이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표 10> 참고). 즉 분담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가정노동에 만족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10> 분담의식과 가정노동 만족

| 분담 의식 | N | 가정노동 만족 | N |
|-------|----|---------|----|
| 분담 원함 | 25 | 만족 | 14 |
| | | 불만족 | 11 |
| 분담 불원 | 5 | 만족 | 4 |
| | | 불만족 | 1 |

이것은 서창원(1984)의 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가 소극적인 주부의 경우에 기대와 현실간의 차이가 적으므로 가정노동에 만족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25명의 주부가 분담을 원하는데 비해 분담정도가 매우 미약하다는 것은 가사분담을 요구하는 주부의 행동과 분담을 원하는 주부의 의식간에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 준다. 따라서 불만이나 갈등을 야기시키는 자신의 의식과 행동간의 괴리를 없애도록 해야하겠다.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인 심층면접을 통해 가정노동에 대한 주부들의 만족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거의 교육 및 현재의 노동조건-을 규명함으로써 주부들의 가정노동 만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면접주부 30명 중 18명(60%)이 가정노동에 만족한다고 하였으나 이 중 13명(70%)이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대답함으로써, 자신의 일에 대해 진정으로 만족하기 보다는 현재 주어진 생활을 단순히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 가정노동에 만족하고 있는 주부들은 거의 모두 생활에 만족하는 데 비

해 가정노동에 불만족한 주부들은 대부분 생활에도 불만을 느끼고 있으므로, 주부생활의 전부나 다름없는 가정노동에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하면 생활만족 역시 증대될 것이다.

가정노동 만족은 어머니를 모델로 하여 성장한 주부의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난 점으로 보아, 어머니의 생활이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더라도 그러한 삶을 당연시할 때 주부역할을 불만없이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주부들은 과거의 주부상과는 다른 모델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부가 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노동에 불만족하게 된다.

이것은 면접자의 절반가량이 결혼전에 주부가 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으며 나머지 주부들도 막연한 생각만으로 주부업을 받아들였다는 본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부들이 가정노동에 만족하지 못한 채 취업을 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취업을 하기 위한 능력이나 확고한 의지없이 무조건적으로 또다른 생활을 원하는 데 문제가 있다. 취업의사가 있는 주부 19명 중 9명이 자신의 적성상 가정일에 더 적합하다고 하였으며 '편안하고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일을 하고 싶다는 사례까지도 있었다.

또 주부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가정노동 자체에 대한 판단보다는 자녀와 남편과의 관계속에서 주부로서 좋고 싫은 점을 평가하였고, 남편의 직업노동이 가정노동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하는 주부(12명)가 그 반대의 경우(5명)보다 많았다. 전자의 경우에 가정노동에 만족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누가 더 힘들게 일하는가와는 상관없이 대부분의 주부(25명)가 남편의 가사분담을 원하였다.

특히 아내가 더 힘들게 일한다고 응답한 주부들조차도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바뀌는 것은 원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직장노동과 가정노동이 대등하게 결합되어 가정이 유지되므로 주부가 자의견 타의견 현재 말고 있는 가정일을 책임지려는 의식을 갖지 않은 채 남편의 보호막속에서 안일하게 생활하며 근거없는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은 앞에서 지적한 취업의사 및 능력문제와 더불어 주부들 스스로 시정해야 할 점이며, 자의든 타의든 자신이 맡은 일을 책임있게 수행하고자 할 때 만족이 증대될 것이다.

한편, 현재의 노동부담은 가정노동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주부들의 노동시간은 5~14시간에 분포되어 있으나 짧은 노동시간이 만족요인이 되지는 못했다. 즉 가정노동의 어려움이나 부담과 같은 현실적이며 가시적인 요인들로 인해 주부들이 가정노동을 기피하는 것은 아니었다. 또 가족원들의 분담시간이 적기 때문에 가사분담여부도 만족요인은 아니었으나 단지 부담을 원하지 않는 주부들은 기대와 현실간의 차이가 적기 때문에 가정노동에 만족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 대다수의 주부가 부담을 원했으나 부담정도가 미약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부담의식과 요구행동간의 차이로 인해 불만이 야기되므로 이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가족들의 분담정도가 주부가 원하는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불만스러울 수 있으므로 가정일을 자신의 직무로 여기고 모두 이행하거나 혹은 기대만 할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분담하도록 요구하고 실행으로 옮기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과거의 교육 및 현재의 노동조건을 통해 가정노동 만족요인을 규명하고자 한 바, 현재의 노동부담을 경감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분위기, 주부들이 받은 교육, 이들의 사고방식 등이 변화되어야만 가정노동에 대한 만족이 제고될 수 있다.

여성이면 누구나 주부가 되고 가정노동을 담당하므로 이에 불만을 느끼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또 사회적 노동을 수행할 의사나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만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 불만이 가정노동 자체의 문제인 양 확대해석되었기 때문에 취업이나 가정노동의 사회화가 최선의 해결책으로 제시되었고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오도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이제는 여성의 모델이 사회속에서 다양하게 제시되어 동일한 조건하에서 취업노동과 가정노동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자신의 의지하에 가정노동을 선택한 주부들이 자긍심을 회복할 것이다.

또한 외적으로는 주부의 경제적, 법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가정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내적으로는 주부 스스로의 의식을 전환하려는 양면적인 해결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제까지는 주부들이 전담하고 있는 가정노동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이제는 해결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주부집단 내부에서 자신의 한계를 적시하고 이윤배반적인 사고를 탈피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자구책이 마련될 때에야 비로소 전업주부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자기의 생활에 만족을 느끼게 되며, 더 나아가서 가정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이수, 박기남, “여성과 노동”, 「여성학 강의」, 동녘, 1991, pp.133-160.
- 2) 김연화, “도시주부의 가치관과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1986.
- 3) 김외숙, “도시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 연구(Ⅱ)”, 한국방송통신대 논문집, 3, 1984.
- 4) ———, 서창원, “부부간의 가사노동분담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방송통신대학 논문집」, 제 5집, 1986, pp.425-440.
- 5) 레이 안드레 저, 한국여성개발원 편, 「가정주부」, 1987.
- 6) 문숙재, “가사노동의 가치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9권 2호, 1991, pp.285-302.
- 7) ———,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에 대한 의식과 실태조사” 「논총」 제 37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980, pp.351-379.
- 8) 박인경, “도시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의식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대 석사학위 논문, 1986.
- 9) 서진영, 「여자는 왜?」, 동녘, 1991.
- 10) 서창원, “주부의 가사노동 만족도와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4.
- 11) 윤소영, “가사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요인 및 통제소재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학위 논문, 1992.
- 12) 이미선, “주부의 자아존중감과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 및 만족도, 숙대 석사학위논문, 1984.
- 13) Duvall, E.M.,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5th(eds.), NY: J.B.Lippincott, 1977.
- 14) Ferree, Myra M., “Satisfaction with Housework: The Social Context”, Women and Household Labor, Sarah F.Berk(ed.), 1980, pp.89-112.
- 15) Gail, Suzanne, “The Housewife”, The Politics of Housework, Ellen Malos(ed), 1980, pp.105-112.
- 16) Maloch, Francille, “Characteristics of Most and Least Liked Household Tasks”, JHE, VOL.55, No.6, pp.413-416.
- 17) Oakley, Ann, The Sociology of Housework, NEW YORK:Pantheon Books, 1974
- 18) Oakley, Ann, Woman's Work, NY:Vintage Books, 1974.
- 19) Steidl, R.E.& E.C.Braddon, Work in the Home, NY:John Wiley & Sons, 1968.